

해남군 “전국 근대5종 선수 총집결 기량 펼친다”

오는 12-18일...800여명 방문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가 오는 12-18일 해남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 종목 가능 시설 경쟁력 ‘우위’
경기시설·교통·편의진진 등 만전



오는 12-18일 해남군 일원에서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가 열린다. 사진은 펜싱선수들이 전지훈련 하는 모습. <해남군 제공>

대한민국 근대5종 선수들이 총집결해 기량을 겨루는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가 오는 12-18일 해남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근대5종연맹이 주최하고 전남도근대5종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 근대5종을 대표하는 선수와 임원 등 8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는 국내 근대5종 종목의 발전과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권위 있는 전국대회로서, 전국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매년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지난 4월 실업근대5종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제37회 문화

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 경기대회를 유치해 우리나라 근대5종 종목 활성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근대5종은 레이저링, 펜싱,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장애물 훈련 등 종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2

024년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승마 종목이 장애물 경기로 대체되면서 장애물 종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장애물경기장을 신축해 운영하고 있다.

450여㎡ 규모 실내 장애물경기장을 비롯해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육상, 펜싱 전용 시설 등 전 종목이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이 해남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과 관계자 등 8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참가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교통 및 편의 지원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남군은 스포노믹스(Sports + Economics) 기반 스포츠마케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며 스포츠를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숙박·외식·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등 스포츠와 경제를 연계한 지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전지훈련을 통해 축구, 육상, 펜싱, 근대5종 등 12개 종목 217개 팀, 4천25명의 선수단을 유치해 연인원 4만여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국의 우수한 근대5종 선수들이 해남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군-佛 국립과학연구원, 해양바이오 ‘맞손’

수석연구원 등 연구시설·양식장 시찰
상업적 협력 모델·2028 박람회 논의



완도군이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과 손잡고 해양바이오 및 해조류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격결연에 나섰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방문단이 완도의 해양바이오 연구 시설과 해조류 양식장 등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구체적인 상업적 협력 및 공동 연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이번 시찰은 지난 2019년과 2024년 완도군이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명연구소를 찾아 다졌던 산업육성협력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방문단을 이끈 필립 포탕(Philippe Potin) 수석 연구원은 해조류 생물학 및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한국 김과 다시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시장을 통해 완도의 선진화된 양식 기술과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추출·가공 설비 등을 꼼꼼히 살폈다.

양측은 기존 학술 교류 수준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상업적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하

기로 뜻을 모았으며, 2028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관련 현안도 심도 있게 공유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다자 공동 편당형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 네트워크’ 논의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시금 활기를 띠 전망이다.

필립 포탕 수석 연구원은 “프랑스의 원천 기술과 완도군의 풍부한 자원·인프라가 결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로스코프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은 완도가 글로벌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계기”라며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업·과학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진도군, 섬 지역 어르신 의료 사각지대 해소

AI-IoT 기술 활용 원격 건강관리

도서 지역까지 본격 확대 운영 중이다.

진도군이 고령화 시대와 지역적 특성에 맞춰 취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비대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10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 보건소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교동이 불편한

현재 1기 등록자 60명을 밀착 관리 중이며, 지난 5월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45명을 2기로 추가 모집했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돌봄 형태로 이뤄진다.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혈압·혈당계, 활동량계 등 제공받은 스마트 기기로 건강 상태를 측정하면 데이터가 앱을 통해 보건

소로 실시간 전송된다. 보건소 전담 인력은 이를 모니터링하며 매일 약 복용, 걷기 등 맞춤형 과제를 부여하고 정기적인 전화 상담을 통해 꼼꼼한 건강관리를 돕는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돌봄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신안 저녁노을미술관, ‘걸어서 미술관 속으로’ 운영

지역 학교 연계 이달 총 5회 진행

확됐다.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이 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우는 맞춤형 예술 교육을 추진한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저녁노을미술관은 지역 학생들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미술관의 공익적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연계 프로그램인 ‘걸어서 저녁노을미술관 속으로’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눈요기를 넘어 학생과 미술관을 잇는 밀착 체험형 교육으로 기

특히 지난해보다 학교 현장의 참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반영해 올해는 6월 한달 동안에만 총 5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참여 학생들은 전문 미술관 교육사의 눈높이 맞춤형 해설을 들으며 작품의 숨은 의미와 다채로운 예술적 표현 방식을 깊이 있게 감상한다.

이어 전시물과 연계된 창작 활동에 참여해 예술을 느끼고 자신만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진>

신안군 관계자는 “학교 연계 미술관 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희 기자

나주교육지원청, 나주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조성

교육부 공모 선정...첨단 실습 환경 구축

세부적으로는 ▲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 혁신 ▲산학 연계 직무 중심 교육 강화 ▲현장 실무 역량 확대 등에 집중한다.

나주교육지원청은 10일 “최근 나주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나주교육지원청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나주교육비행’ 사업의 일환으로, 나주공고는 향후 5년간 교육부 지원금 최대 45억원과 전남도교육청 및 나주시의 대응 투자 40억원 등 총 85억원 규모의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한 직업 교육을 넘어 졸업생들이 지역 우수 산업체에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취업·정주·성장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변정민 나주교육장은 “나주교육비행 사업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나주공고의 폐가가 교육과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탄탄하게 다지는 미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준환 기자

목포해양, ‘바다의 지뢰’ 폐어구 불법투기 점검

26일까지 운영...홍보·계도 병행



목포해양경찰서가 폐어구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26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및 어구 관리 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전국적으로 적정량을 크게 웃도는 어구가 사용되면서,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가 해양오염은 물론 심각한 해상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진도군 서거차도 인근 해상에서는 폐양강망 어구 약 2t이 표류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해경이 경비함정을 긴급 투입해 수거한 바 있다. <사진>

이에 합동점검반은 관내 주요 항·포구와 어선, 양식장을 비롯해 어구 생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조업중 발생한 폐어구 적정

처리 여부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여부 ▲유실어구 신고제 이행 여부 등이다.

이밖에 해경은 어구 관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수준 목포해양경찰서는 “폐어구 불법투기는 해양환경 훼손을 넘어 어업인 스스로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HD현대삼호, 세계 첫 ‘알루미늄 케이블’ 선박 인도

극동전선·한국선급 등 협업 결실

가격 폭등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다.

HD현대삼호는 “최근 회사 야드에서 설계부 문장인 심학무 전무와 HMM, 한국선급, 극동전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알루미늄 케이블 세계 최초 적용 성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된 선박은 ‘에이치엠엠 제이드(HMM JADE)호’로, 극동전선이 개발한 알루미늄 케이블은 전 세계적인 구리

이름 선박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구리 케이블 대비 약 30%의 획기적인 원가 절감을 이뤄냈으며, 선박 무게를 11가량 줄이는 경량화 효과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 한국선급의 개편 승인 획득을 시작으로 선주사 제안, 현장 포설 점검, 해상 시운전까지 약 3년에 걸친 꼼꼼한 검증 끝에 값진 결실을 맺었다.

/영양=나동호 기자